



가족들의 넋 위로... 축혼제를 지내는 축산과학원 직원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직원들이 10일 본원 내 축혼비 앞에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된 가족들의 넋을 위로하는 축혼제를 지내고 있다.

익산소라 공동주택용지 신규 공급

LH 전북본부, 60~85㎡ 257세대로 구성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안창진)는 명품 학군과 더불어 대규모 생태공원이 위치한 익산소라지구 공동주택용지(B-1블록)를 신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사전청약제도가 적용된 민간분양 공동주택용지(60~85㎡)로서 대지면적 1만 2295㎡로 총 257세대, 최고 29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
공급예정가격은 191억8,000만원(156만원/㎡)이며, 3년 분할납부(유이자) 조건으로, 공급방법은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신청지역은 공고일(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 3년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 행정처분사실이 없는 건설업체로서 계약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이행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익산소라지구는 많은 수목과 숲속 산책길 및 자연생태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도심 속 쾌적한 공기와 일상 속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익산중심지와 1~2km 이내

에 위치하며, 교육(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과 마트, 병원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KTX/SRT와 터미널까지 가까이 있어 주거지로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익산소라지구는 장기 미집행된 공원화시설로 개발난을 겪었지만, LH가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과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서민들의 보금자리까지 제공하게 됐다.
분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s://apply.lh.or.kr>)을 참고하거나 LH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063-230-6104, 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군산항 활용
전북도는 10일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사업자·항만운영사 간 군산항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산항 6부두, 7부두 및 기타 부지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 범위 및 역할 등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벼·콩·팥 정부 보급종 개별 신청율

국립종자원, 벼 18
콩 1·팥 1품종 잔량
소진할 때까지 신청 가능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지자체를 통한 정부보급종 계통신청 이후 추가적으로 정부보급종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신청 가능한 벼·콩·팥 정부보급종 품종을 안내하고 잔량 소진 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급가능한 물량은 총 2,085톤으로 그 중 벼는 1,983톤 18개 품종(고시히카리, 동진할, 미풍, 삼광, 새봉황, 새일미, 신동진, 영진, 오대, 오로, 일미, 일품, 조명호, 추청, 하이이미, 해당쌀, 해풍, 현품) 신청가능하다. 구입가격은 20kg당 4만9,020원(메벼), 5만820원(찰벼)이고, 콩은 49톤 1품종(대일)으로 5kg당 2만9,410원, 팥은 3톤 1품종(아리리)으로 5kg당 4만5,030원이다.
벼는 20kg 콩·팥은 5kg 단위로 국립종자원 종자지원서비스(www.seednet.go.kr) 또는 품종별 공급지원을 통해 잔량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택배(20kg당 5,500원 택배비 선불)로 종자를 배송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보급종 중 벼 미소독 종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벼 카디리 예방을 위하여 온탕 소독 및 약제 침지 소독을 통한 종자소독이 권장된다. /김윤상 기자

‘꼭 통신비 절약’ 고객 이벤트

NH국민은행, 이달 신규가입 고객 중 100명 추첨 경품 증정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상호금융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모바일 플랫폼 NH국민은행 내 달간 모바일 플랫폼 NH국민은행 전용 상품을 통해 일할폰 요금제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은 오는 31일까지 NH국민은행의 ‘꼭통신비절약’에서 국민은행 전용 요금제 3종 중 하나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 중 총 100명을 추첨해 건조요(1명)·무선스마트(1명)·노트북(1명)을 비롯한 인기 가전제품과 홍삼 세트, 치킨 쿠폰, 커피 쿠폰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NH국민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통신비절약’은 농협이 지난해 9월 IG유평플러스와의 제휴를 통해 선보

인 서비스로 출시 7개월만에 가입자 1만 8천명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용자에게는 꼭통신비절약 전용 요금상품으로 월 1만 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상품에 24개월 요금할인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며, 일할폰 가입자에게는 새로운 판매할로를 제공해 중소기업자와의 상생협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NH국민은행은 통신 서비스를 비롯해 쇼핑, 화해, 축산 등 여러 분야와 제휴를 맺어 고객들에게 금융 외에도 생활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확대해 꼭 통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간척의 땅’ 새만금에 문화의 꽃 피우다

새만금개발청, 내달 10일까지 공공조형미술 공모전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에 매력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 유명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6월 10일까지 ‘새만금 공공조형미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의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주제로 하며, 전문 심사위원단이 심미성·안정성·기술성·독창성·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1명(700만원), 최우수상 1명(500만원), 우수상 1명(300만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결과는 6월 30일 발표(수상자는 개별 통보 및 공모전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대상에 선정된 작품에 ‘국립새만금건축박물관’ 야외 용지에 설치(1억원 상당)해 관광객들을 위한 사진 촬영명소(포토존)로 활용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공모전 누리집(www.새만금공공조형미술공모전.com)을 통해 5월 18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신청자 중 희망자에게 한해 오는 20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과 전화(070-4168-8874)로 문의 가능하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재능있는 예술인들의 수준높은 작품이 새만금에 문화·예술이 태동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탄생할 새만금에 문화예술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방조제 주변과 스마트 수변도시 등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특색을 표현한 조형물들을 설치해 새만금의 상징물(랜드마크)로 활용하고,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국민 아이디어 찾아요’

농진청,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공모... 농기계 사고·농작업 재해 등 4개

농업인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이달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업의 중요성과 농작업 안전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국민 제안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모 분야는 ‘농기계 사고’, ‘넘어짐·떨어짐 사고’, ‘과도한 힘·동작에 의한 손상’, ‘기타 농작업 재해’ 4개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인 안전사고

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개청 60주년 기념사업 누리집(www.농촌진흥청60주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8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장상(대상, 금상), 국립농업과학원장상(은상, 동상), 장려상 모두 17편을 선정해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편의·안전장비를 개발해 보급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현황을 파악해 농가 안전관리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안전365 누리집(farmer.rda.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해 농업인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번 공모전에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기중앙회 60년 역사, 사진에 담다

창립 60주년 기념 사진전
31일까지 메인홀서 전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 로비에서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을 주제로 사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기문 회장 회장을 비롯해 역대 회장 및 중소기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진전은 중기중앙회 창립 이후 지난 60년간 이뤄낸 성과와 역사적인 순간들을 사진을 통해 회고하는 자리로, 130여장의 사진들로 구성됐다.
사진전은 오는 31일까지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 로비(메인홀)에서 상시 개최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962년

36개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출발한 중기중앙회는 현재 969개 협동조합과 688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성장했다”며 “앞으로

도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매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 지정·운영

전북경진원, 지난 3월부터 캠페인 실시... 하반기 인권교육

(재)전북도경제개발진흥원(이하 경진원 원장 이현웅)은 조직 내 인권 존중을 위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 지난 3월부터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진원의 ‘2022년 인권경영 실천 계획’의 일환으로 평소 농기계 쉬운 부분을 실천하며 잠정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취지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지시나 요구하지 않기 ▲감사어 칭찬의 말 주고 받기 ▲직급에 관계 없이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의 호칭 사용하기 ▲직원 간 사생활 존중하기 등 5대 실천과제를 공유함으로써 인권 존중에 노력하고 있다.
이현웅 원장은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 확산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진원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형평교육, 하반기 중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